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3년도 표어 ☉

생명의 성령이여 삶의 주인이 되소서 (롬14:17)

☉ 행동지침 ☉

- 1. 역사의 주권자를 보자
- 2. 임마누엘의 삶을 살자
- 3. 생명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소신지서 강해  
-아모스서-

## 다섯 가지 환상 (아모스 7장 1 - 17절)

아모스 선지자는 다섯 가지의 환상을 보는 가운데 메뚜기 재앙, 불 재앙, 다림줄 재앙의 환상(7장)과 실과 한 광주리 환상(8장), 제단 곁에 서계신 하나님의 환상(9장)을 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영적인 재앙을 받지 않기 위해서 피할 길을 찾아야 할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범죄 하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환상에서 본 것처럼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 (1)메뚜기 재앙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1-2절).

메뚜기 재앙은 요엘서에 나온 것과 비슷합니다. 메뚜기는 외세의 침략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대개 추수를 두 번 하는데 먼저 하는 추수는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하고, 나중에 하는 추수는 자기들의 공간에 들이기 위해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추수를 할 때 메뚜기가 나타나 땅의 풀과 곡식을 먹습니다. 이와 같이 파괴적인 메뚜기 공격에 대한 환상을 지금 아모스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눈물을 흘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상 속에 나타나는 때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미물이 때로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더 이상 분열이 되지 않는 원자가 폭발을 하면 수십만 명을 한꺼번에 죽이는 위력을 발휘합니다. 메뚜기는 지극히 작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을 파멸로 이끌 수 있습니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2절).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메뚜기가 풀을 다 먹고 이제는 곡식을 먹을 것이며 마지막에는 사람까지 먹겠다고 덤벼들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라에 어려움이 닥치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아모스는 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때때로 국가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고난의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밑바닥에는 반드시 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먼저 죄 사함을 구해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하여 환난을 주신다고 해도 그 때에도 우리는 먼저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3절).

하나님은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다가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할 때 나라도, 가정도, 교회도 구원함에 이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뜻을 변경시키시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죄를 멸하시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바뀐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바뀐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메뚜기, 곧 외세의 침략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키는 본인가라는 의문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윤리와 국가 혹은 단체 윤리는 구분해야



**때때로 국가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고난의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밑바닥에는 반드시 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먼저 죄 사함을 구해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하여 환난을 주신다고 해도 그 때에도 우리는 먼저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합니다. 가령 가나안 칠족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에게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일곱 번씩 일흔 번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인은 끝까지 인내하며 용서해야 합니다.

### (2)불의 재앙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4절).

불의 재앙은 메뚜기 재앙 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징벌’은 다룬다는 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불로 다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이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는다는 것은 이방 나라와 이스라엘이 모두 불의 심판 아래 있음을 말합니다.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5-6절).

아모스 선지자는 또 이스라엘이 지극히 미약한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고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기독교는 어떤 의미에서 회개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죄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회개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시어 내리시던 징벌도 멈추십니다.

### (3)다림줄 재앙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8절).

다림줄은 측량줄로 밑에 납덩어리를 단 줄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림줄로 한 치도 어긋남이 없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심판의 확실성을 의미합니다. 죄의 양과 질과 무게를 철저히 재시어 우리를 결코 역울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9절).

다림줄로 심판할 대상은 성소와 왕궁, 곧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 정부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존중히 여기듯 이삭 역시 매우 존중히 여겼습니다. 이삭은 여러 곳에 우물을 팠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삭이 예배하던 곳마다 이삭을 위한 산당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에서 사람을 우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의 미신행위로 간주하여 이것을 모두 파괴시키셨으며 이스라엘의 성소와 여로보암의 정부를 치시겠다고 합니다.

“네 아내의 성을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엮드러지며 네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17절).

나라가 부패하고 하나님의 성소가 더러워질 때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무섭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 앞에 다가온 모든 난관과 시험과 위기를 하나님의 경교로 받아야 합니다. 속히 회개의 기도를 하여 이 벌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변개 되어 구원함에 이르는 민족과 교회와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한마음 한가족 축제

## 5월8일(목) 9시 30분 밀알학교로 모이자

제5회 한마음 한가족 축제가 8일(목) 오전 9시 30분에 강남구 일원동 소재 밀알학교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 열린 교회, 화목한 가정, 섬기는 우리 >란 표어 아래 준비되고 있으며 우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경기를 통해 주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한마음으로 말씀과 교회를 사랑하는 자리로 마련되어 전도의 장으로도 훌륭하게 활용되도록 구성되며 경기 참여를 위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교통편)

모든 성도는 교회로 모여 아래의 시간에 버스로 출발한다.

- 1차: 오전 8시
- 2차: 오전 8시30분
- 3차: 오전 9시

전철은 3호선 일원역에서 하차, 7번 출구로 나와서 100m 지나면 된다. 승용차를 이용하시는 분은 교회에서 카풀을 해주기 바란다.

### (복장)

축제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는 상의는 반드시 교구별로 지정된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하며 하의는 편안한 복장으로 하면 되고 신발은 경기장이 마루바닥인 관계로 반드시 운동화만을 착용하여야 한다. 유니폼은 본인이 소속된 교구담당 간사를 통해 구입하면 된다.

### (경기종목)

- 1. 큰 공을 굴려라
- 2. 동역자를 찾아라
- 3. 라면박스 위를 뛰어라
- 4. 응원단장에게 옷을 입혀라
- 5. 한마음, 한뜻자리
- 6. 공을 날라라
- 7. 작은 줄을 선점하라
- 8. 풍선을 폭발하라
- 9. 한마음 줄넘기
- 10. 줄다리기 대전
- 11. 앞을 보고 달려라
- 12. 한가족, 한마음 축구
- 13. 중고등부 농구
- 14. 대.청부 농구



### 가족친양대회 공고

- 본 선: 5월16일 7시
- 지정곡: 찬송가 305, 408, 434 정중 한곡과 자유곡 한곡
- 참가 대상: 가족(다른 가족들이나 다락방 가족도 가능)
- 장 소: 101호 웨스트민스터 홀

## 말씀과 잔치가 함께하는 어린이 주일

### 교육1국 주관으로 다양한 어린이 주일 잔치 준비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어린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에게 믿음의 대를 이어가도록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신 어린생명들을 감사하는 주일이다. 교회는 오늘 교육1국 주관으로 다양한 어린이 주일 잔치를 준비하였다.

장소: 9층 옥상  
시간: 11시 - 1시  
6.상품추첨

오늘 응모한 상품추첨권은 모레 6일(화) 추첨해서 집으로 연락합니다.

#### 1. 다함께 가족예배를 드려요.

1부 가족예배를 부모님과 함께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 2. 점심식사

점심시간에는 8층 식당에서 특별히 준비된 맛있는 짜장면과 과일과 후식(솜사탕, 팝콘, 음료 중 한가지 선택)을 먹습니다.

#### 3.인형극 공연

장소: 706호(유치부실)

공연시간:

- 1시-하나님의 손(유아부팀)
- 1시20분-짱구의 믿음(유년부팀)
- 1시40분-셋째 왕자와 성경책(사랑부팀)
- 1시50분-하나님의 손(유치부팀)

#### 4. 영화상영

장소: 101호 웨스트민스터 홀

시간: 11 - 1시

영화제목: 이집트 왕자2(요셉 이야기)

#### 5. 놀이마당

### 새가족 환영의 시간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지난 4월중 우리교회에 등록된 새가족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강 은 강정옥 강명학 강재택 강정임 곽애숙 곽재훈
- 김 영 김 화 김기문 김나영 김도현 김명준 김문순
- 김미정 김민선 김민주 김민희 김상순 김상준 김서혜
- 김석호 김소연 김소영 김수경 김순남 김순옥 김순희
- 김알영 김연준 김영두 김예슬 김옥형 김이수 김이수
- 김재혁 김정민 김정옥 김주원 김준식 김준식 김지연
- 김진숙 김진월 김창민 김철중 김치삼 김태봉 김한서
- 김혜령 김호성 김희열 나기연 류아리 박다정 박명한
- 박미수 박순수 박수상 박정원 박준석 박지현 박하은
- 박현한 박호명 배주연 백정숙 백종민 백지현 서경선
- 서말숙 서수경 서어금 손대숙 손윤순 송동준 송미령
- 송미영 신동변 안나경 안상용 안승섭 염지아 오순실

밀알학교에서 만납시다



한마음·한가족 축제진행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한 가족이 되는 순간을 체험하며, 한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축제가 여기 있습니다. 잠깐 만나 커피 한 잔을 마시고 헤어져도 행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꿈과 비전이 통하는 사람, 같이 있기만 해도 마음이 편한 사람, 눈빛만 보고 있어도 편안해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사람이며,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이 잔치를 베풀고 초대합니다.

지름 1.5m의 큰 공을 함께 굴리는 경기로 시작하여, 동역자를 찾아 함께 손을 잡고 돌아오는 경기,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가야 승리하는 경기, 멋진 응원 단장에게 우리가 옷을 입혀 보는 게임, 서로 서로 손을 잡고 몸을 맞대어 한 덩어리가 되는 경기, 2002월드컵의 열기를 느끼게 하는 미니 축구경기, 힘과 재치가 필요한 미니 줄다리기, 거짓과 위선의 풍선을 폭발하는 경기, 위기를 함께 손을 잡고 넘어야 하는 긴 줄넘기,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줄을 당기는 경기, 믿음의 유산을 계속 이어가는 이어달리기 경기 등 다양한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경기와 함께 또 푸짐한 행운권 추첨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오시고, 온 교구가 함께 오시고, 온 마음이 함께 하여서 풍성한 기쁨을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반드시 유니폼을 입으시고, 운동화를 꼭 신으시고 - 바닥이 나무인 관계로 구두는 입장불가 - 시간을 지키셔서 밀알학교에서 만납시다!

오영숙 오중훈 오현아 유영호 유영은 유영준 유정선 유효심 윤도현 윤이식 은기장 이강진 이기춘 이명순 이명훈 이민규 이상은 이상현 이석기 이성희 이수완 이애덕 이영금 이주연 이호현 임동영 임명자 임병도 임제연 임현수 장재영 장정옥 장제원 장현진 정기룡 정상달 정영섭 정영한 정이경 정중훈 정혜정 정희경 주현준 최서원 최재식 최재원 최정신 최정호 최준숙 추재덕 한은주 한차남 허관녕 홍수현 홍순혁 홍중대 황두연 황원창 황준석 황준연 황지은 황지혜 황현석 (이상 147명)

### 금주의 성구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도다(시 23:1-2)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s, (Psalm 23:1-2)



**다음이를 선물로  
받은 지  
벌써 10개월!!**  
원영에 집사(12교구)



아마도 사랑의 축수를 잔다면 주님사랑... 그 다음이 아닐까..... 작년 7월 어느 날 새벽이었다. 마치 주님의 계시라도 받은 양 그날따라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어느 순간

이던가 정적을 깨고 전화벨소리가 울렸다.

긴급히 들리는 소리엔 어머니 !..... 다급해진 사위의 목소리였다. 병원이라고 한다.

부라부라 새벽인지 밤중인지 분간 없이 달려갔다. 아니!! 무엇이 그리 급했던지 벌써 그 모성의 품안에 안겨있다  
아! 새로운 생명이어! 그 어느 것에도 비견할 수 없는 주님의 행복한 선물이었다.  
주렁주렁 웃음과 사랑과 재미가 온 집안 식구들의 뒹을 만들어 내고 있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다음이는 우리 곁에 와 있었다.  
가장 값진 그분의 선물로!! 소중한 열매로!! 양가의 틀림없는 분신으로!!

우리 모두 눈감고 기도할라치면 이 무릎 저 무릎 옮겨 다니면서 막연한 몸짓을 보이는 어린 생명이지만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주신 절대적인 희생과 가치를 배우게 될 것이다.

마치 스폰지에 물이 스며들듯 그렇게 진리를 배워갈 것이며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몫이고 우리가 받은 지상명령이므로...

아~ 우리 모두는 이런 덩으로 얻은 기쁨이 얼마나 값지고 풍성한지를 느끼고 감사해야 할 것이다.

이 찬란한 5월이 지나고 달력을 넘기며 송구영신에 배를 드릴 때 까지 아니 평생을 맞도록 까지 우리의 코드를 주님께 맞춰가야 하지 않을까.

이제는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것이다.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서울교회 어린이에게

**하늘 나라의 보배인  
어린이들에게**



이중운 목사

목사님은 1부 가족예배 시간이 너무나 기다려집니다. 왜냐하면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말씀을 듣는 우리 어린이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

치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해주심을 바라고 어린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그런데 그 때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족이나 사람이 많은데 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서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하시고 환영해 주십니다. 그리고 천국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을 때론 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열심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어도, 친구들이 놀러가자고 유혹해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귀담아듣고 믿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은 '천국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친구들이 요셉처럼 꿈꾸는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하는 꿈을 통해 나중에 애굽의 총리대신이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요셉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같이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서 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커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다스리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병이어를 드린 어린이처럼 하나님께 헌신하는 어린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때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때 한 어린이가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 떡 다섯 개로 무려 오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교회 모든 어린이들이 예배하는 어린이, 꿈꾸는 어린이, 기도하고 헌신하는 어린이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어린이 주일 특집

**필그림 유소년 축구단 전도도 씩씩하게**

작년 8월부터 시작된 필그림 유소년 축구단은 올해 2월 창단식을 가지면서 축구전도의 방법을 더욱 활성화 시켰다. 유년부 모든 교사들은 열심을 다해 매주 토요일 심한 폭우의 날 외에는 보슬비가 내리는 가운데에서도 축구를 하며 친구들을 열심히 교회로 인도하고 있다.

은마 아파트 십자공원에서 진행되는 축구전도는 십자공원이 너무 좁아 대곡 초등학교를 빌려 쓸 수 있도록 해 놓았지만 아파트 가운데에서 진행되는 전도의 장점이 지나가는 어린이들을 이끌어 오는 것을 놓치고 싶지 않아 십자공원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다.

필그림 축구단의 대표선수인 이윤빈 어린이와 아버지 이종창 집사님이 축구단의 실무를 맡아 운영하므로 전도는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윤빈이가 전도한 허관영어린이는 토요일 축구모임에 먼저 나와 축구를 하게 되고 이를 계기로 선생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주일에 교회 출석을 하게 되었다. 불교신자인 부모님은 교회 출석을 하지 않고 있고 관영이가 집에서 찬양을 흥얼거리는 것을 정말 싫어한다고 하여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



▶안세진 어린이 가족

하다. 한편, 윤빈이가 전도한 주현준이라는 친구도 역시 축구를 통해 교회에 오게 되었다. 지난 부활주일에 전도상으로 받은 축구공을 전도해온 현준이에게 전해준 윤빈이의 마음이 정말 예쁘고 고맙다.

고윤석 어린이도 축구전도를 통해 교회에 오게 되고 부모님이 나중에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윤석이 누나도 초등부에 등록을 하여 다니게 되었다. 필그림 축구전도는 가족들의 등록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다른 부서에도 그 가족이 등록을 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김이준 어린이는 필그림 축구단의 여학생으로 이준이와 동생 지은이가 먼저 교회에 나오게 되고 엄마와 아빠가 나중에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준이가 축구전도부장을 맡게 되면서 우리교회와 좀더 가까워졌다. 이후에 엄마 이연정 성도는 우리교회에 또 다른 이웃을 전도하려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동호 어린이 가족

이동호어린이는 축구 전도를 통해 우리 유년부에 등록을 하게 된 좋은 친구이다. 동호가 먼저 교회에 등록을 하고 그 가족이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엄마 이상은 성도는 이를 계기로 유년부 교사까지 하면서 많은 친구들을 심방하며 전도하는 좋은 일꾼이 되었다. 축구전도는 이러한 결과를 계속 맺어 나가기 위해 열심히 진행될 것이며 모든 성도들의 격려가 많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 한번쯤은 이들이 활동하는 현장에 와서 함께 뛰여주는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일까? 유은경(편집부)

## 은빛 찬양대를 졸업하신 전춘자 권사님

원복순 권사(서울권사회, 2교구)

사랑하는 권사님. 평안히 잘 가시었소.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쉬일 곳 아주 없네  
광야에 찬 바람 불어와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날 구원하신 주 모시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구부러진 등, 들리지 않는 귀, 보이지 않는 눈,  
백발의 은빛 대원들이 부른 찬양을 감사로 화답  
이나 허듯 웃는 사진속의 권사님 모습.

안녕히 편히 가시오.

은빛 찬양대의 악보를 꼭 움켜잡고 덧없이 흘러  
간 세월일랑 원망하지 말고 돌아갈 내 고향은  
하늘나라임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사랑하는 전춘자 권사님.

아픔도 미움도 욕심도 아집도 이제는 소용이  
없구려.

하늘나라 은빛과 금빛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하늘나라! 거기서 영원히 찬양만 부르시구려.

권사님. 사랑하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환송했다고요.

사랑하는 전춘자 권사님!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함께 가슴으로 부르던 눈물어린 찬양이 정말  
로 아제 같구려.

동갑내기 친구 전춘자 권사님, 비록 파이프  
오르간을 당신은 보지도 못하고 그 소리도 듣지  
도 못하고 갔지만 당신은 천국에서 찬송하고 있  
으니 이 땅이 어찌 비교가 되겠소.

권사님!

우리는 행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서울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 외면하지 아니  
하시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  
파하라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셨으니 말입니  
다. 우리는 여기서 기뻐 찬송하며 부르시는 날까  
지 기도하렵니다.

주님의 품안에 안긴 권사님, 천국 백성 되었  
구려. 잘 가십시오.

### 교우기업탐방

## 신앙은 우리 삶을 성공과 기쁨으로 이끄는 원동력

윤석호 집사 박금실 전도사 가정



(주)파진바이오를 경영하는 윤석호 집사는 1948년 전  
북 군산에서 출생하여 1975년 박금실 전도사와 결혼하여  
슬하에 두 아들 희권, 희송을 두었다.

(주)파진바이오는 진생가시오가피를 탄생시킨 회사이  
다. (주)파진바이오가 지금은 자체 공장을 갖추고 30여개  
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탄탄한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지난 20 여 년간 그가 걸어온 기업가로서의 길은 한 마디  
로 파란만장한 것이었다.

윤석호 집사는 대학을 졸업한 후 모 제약회사에 취직하  
여 열심히 일하며 승승장구 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그는 곧  
독립사업을 시도했으나 사업전선은 냉혹하기만 해서 사업  
을 시작하지 3년 만에 큰 액수의 부도를 내고 말았다. 채무  
자에게 먹살을 잡고 온갖 창피를 당했다. 채권자들을 찾  
아다니며 재기를 호소하고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10년 동  
안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빚을 갚는 동안 하나님은 그  
에게 영적인 훈련도 함께 시키셨다.

부도의 여파는 참으로 컸다. 10평짜리 아파트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지하 단칸방으로 이사를 다니는 중에 내수

침체로 인해 부도가 난 회사를 인수하여 이름을 '파진바이  
오'라 했다. '파진'이란 진리를 전파한다는 뜻으로 그는 하  
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사 이름을 직접 지었다.

윤석호 집사는 지난 해 성실한 기업 운영으로 제1회 수  
출기업인상을 받았다. (주)파진바이오는 앞으로 바이오  
벤처 기술을 확대, 대체의학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면서 옥  
수수 가공공장을 늘려 해외수출에 주력할 것이다.

윤석호 집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그의 부친을 통해  
서였다. 본래 철저한 불교신자였던 그의 부친은 기독교  
인 군산기술중학교 교장으로 부임하면서 어쩔 수 없이 예  
배를 참석해야 했다. 그러나 복음은 그의 부친을 변화시켰  
다. 지독한 불심이 신실한 믿음으로 탈바꿈 한 것이었다.  
이렇게 윤 집사는 부친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대학교  
에서는 기독교회 회장을 맡아 활동하였는데 지금도 기  
독교회회의 동문들의 모임을 계속하며 해외선교 사역을  
하는 가운데 작년에는 미얀마에 가난한 농군학교 건축을  
지원하여 준공식을 갖기도 하였다.

사실 결혼 초 만해도 아내 박금실 전도사의 신앙은 미  
미한 것이었다. 그러나 윤석호 집사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아내는 절실한 기도생활을 통하여 신앙이 성장하였고 마  
침내 신학을 공부하여 지금은 서울교회 유아부 전도사로  
사역하며 사회복지전문가로서의 길을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신앙은 우리 삶을 성공과 기쁨으로 이끄는 원동력이며  
특히 사업가에게는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라는 윤석호  
집사, 이제는 자신이 주님을 위해 일해야 할 차례가 되었다  
고 말한다. (허숙(편집부)

### 동정

- 이종윤 목사는 6일(화) 서울 강남노회 32회 정기회, 7일(수) LCWE(world Inquiry)대회에 참여하고, 9일(금) 장로교 신학 회 임원회를 소집한다.
- 장애회 권사 에바다부 수화 찬양대 가운 50명 기증
- 살롬 권사회 · 김세재 장로 · 원복순 권사 · 전인화 권사 - 에바다부 기념품 제공
- 이상호 성도(3교구, 이덕준, 이경자 성도의 아들) UCLA 생명 공학 박사학위 취득
- 금주의 식사: 서창원, 이계홍, 오광환, 조정식, 이양철, 오유식, 최홍열 집사 가정
- 목회자세미나 식사국거리제공: 이관규 장로 가정
- 목회자세미나 식사제공: 김재근 집사, 안분선 권사 가정

###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Y 106.9M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 5월중 행사 계획표

- 5. 2(금) 주기도문, 사도신경 재번역을 위한 각 교계 지도자 초청 간담회
- 5. 3(토) 개혁 신학회
- 5. 4(주) 어린이 주일, 새가족 환영회
- 5. 6(화) 서울 강남노회 제32회 정기회
- 5. 8(목) 한마음 한가족 체육대회
- 5.11(주) 어버이 주일
- 5.15(목) 대치지역 교회연합회
- 5.16(금) 가족 찬양대회
- 5.18(주) 교구 위원회
- 5.23(금) 찬양대원 세미나
- 5.25(주) 공동의회(장로선출) 찬양위원회

## 서울 주간기도

###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개인, 가정, 교회되도록
2. 23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와 열린 프로그램을 위하여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4. 5월 8일에 열리는 한마음 · 한가족축제를 위하여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 교회약도 :

